



병어리기생이 전하는 옛이야기 展

2017년
7월 4일(화) - 7월 10일(월)

인천 한중문화관



민화, 병어리 기생이 전하는 옛이야기 展을 열며

조선민화박물관장
오석환

흔히 문화재를 “병어리 기생”이라고 한다. 기생은 고미술품 등 골동(骨董)이 물질문명 속에서 돈이나 권력과 결부되는 면모를 빚대어 함축한 단어이다. 그 중에서도 병어리 기생의 처지는 그저 자기를 아껴 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팔려만 다닌다는 점에서 골동과 비슷하여 이러한 표현이 생겨났다.

이번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의 설화도(說話圖)는 구운몽, 삼국지연의, 서유기, 춘향전 등 소설이나 옛이야기 등을 각기 다른 장면과 표현 방식으로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2부의 고사인물도는 한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워 서한 삼걸이라 일컬어지는 장량과 한신, 위수에서 주나라 문왕을 만나 태사가 된 후 은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 시조가 됐다는 강태공 그리고 요임금때의 허유 등 고사(高士)를 그린 그림들이다.

전시에 출품되는 설화도와 고사인물도 유물(병어리 기생)은 다양한 교훈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조들이 병어리 기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조선민화박물관 소개서

국내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인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은 어해도와 화조도, 까치와 호랑이 등 소박한 서민의 애환이 담긴 대표적인 소장품 조선시대 민화 4,800 여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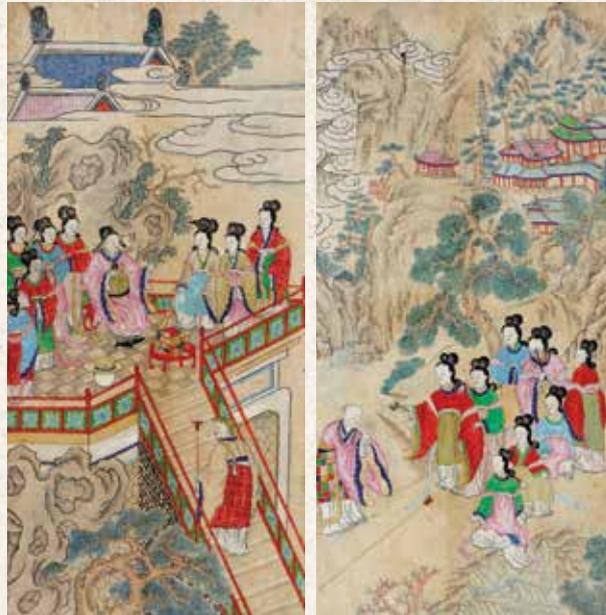
200 여점과 춘화 50여점, 현대민화 100여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2,000여명의 야생화 공원, 조선시대 고가구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의 풍부한 문화적 감성을 충족시켜 준다. 특히 국내에 처음 개관한 민화박물관의 위상답게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민화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일반 및 민화 애호가들에게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기획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전문 해설사의 재미있고 유익한 민화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학습 코너도 마련돼 있어 직접 민화를 그리거나 민화 리빙아트를 만들 수 있다. 성인들을 위한 춘화방에는 우리 선조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성이야기가 담긴 조선시대 춘화와 일본 및 중국 춘화가 함께 전시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Chosun Minhwa Museum, the first and representative Minhwa specialized museum in Korea, offers visitors original folk paintings of the Chosun Dynasty with informative and interesting explanations by professional commentators. Various exhibition rooms contain different art pieces relevant to Minhwa, such as antique furniture and contemporary folk paintings. Also, there is an exhibition room beloved by visitors with a collec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erotic paintings(Choon-Hwa). Moreover, visitors can participate in folk painting printing and drawing events at the Folk Painting Experience Center, which is located inside the museum.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32-10
전화 033-375-6100 / 팩스 033-375-6102
www.minhwa.co.kr

설화도 說話圖

설화도(說話圖)라고 하면 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문학작품 속 인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뜻한다. 국내에서 설화도가 언제부터 그려졌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사인물도와 유사하게 왕실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향유되다가 민화로 저변화 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화도는 넓은 의미에서 고사인물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술사학에서는 고사인물도에 포함된 개념으로 함께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민화 연구자들이 굳이 민화 설화도를 고사인물도에서 따로 분리한 것은 설화도의 경우 고사인물도와 달리 「구운몽(九雲夢)」의 주인공 성진과 같이 주로 가상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설화도는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등을 전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구운몽도 8폭 중 2폭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생애나 문학작품에 관한 중요 장면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중국 한 대(漢代)에 시작되어 송대(宋代)에 이르러 그 교훈적 측면이 문인취향과 결부되면서 발전하였다. 고사인물도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고려 후기이고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왕실과 사대부에 의해 애용되었는데 이는 제재로 선택된 인물이 대개 조선의 국시(國是)였던 성리학적으로 교훈과 감계를 줄 수 있는 성현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집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사인물도가 저변화 되면서 민화로 제작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였다. 민화 고사인물도의 제재는 일반회화 고사인물도와 달리 허유와 소부, 강태공 등의 이야기가 선호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사인물도 8폭 중 2폭

說話圖